

15세기 관각문학 글쓰기의 집단지성적 면모*

- 1488년 「황화집서(皇華集序)」를 중심으로 -

구슬아**

- I. 관각문학의 또 다른 글쓰기 방식, ‘취사·간택(取捨揀擇)’
- II. 1488년 「황화집서(皇華集序)」의 창작 경위
- III. 어세겸의 「황화집서」: 초고와 윤색고의 대비
- IV. 김종직의 「황화집서」: 탈락의 이유
- V. 15세기 관각문학 글쓰기의 집단지성적 면모

<국문초록>

이 연구는 15세기 조선 관각문학 글쓰기의 집단지성적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 어세겸과 김종직이 찬술한 1488년본 「황화집서」를 집중 분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황화집』에 수록된 어세겸의 서문이 『함중세고』에 수록된 서문과 큰 차이를 보임을 밝히고, 초고와 윤색고 간 글쓰기 방식의 차이를 통해 윤색의 주체를 추정하였다. 또한 서거정 계열 관각문인들과 김종직 이후의 관각문인 간 문명의식 표현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역시 살펴보았다.

1488년 「황화집서」는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이 조선에 사신을 왔을 때 만든 『황화집』에 붙인 것이다. 당시 두 사신은 후중한 학식과 예법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조칙례(詔勅禮)를 둘러싸고 조선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으로 인해 성종과 신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이에 「황화집서」를 통해 조선의 문명의식을 제대로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 서문은 유력 문인들에게 두루 작품을 받아 그 가운데 최선의 것을 취

* 이 연구는 포니정장학재단의 2020년 학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사·간택(取捨揀擇)하는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최종 간택된 것이 바로 어세겸의 작품이었다. 본고에서는 대제학 서거정의 문명의식을 비교 준거로 삼아 어세겸의 초고와 윤색고를 대조하였다.

그 결과, 어세겸은 초고에서 화이질서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사대적 표현을 다용하는 가운데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과도하게 비하하는 면모를 보였다. 서거정 등이 검열한 것으로 추측되는 윤색고에서는 해당 표현이 전면 삭제되는 한편, 『황화집서』 창작의 전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김종직은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한껏 강조하였으나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15세기 외교 및 문명의식의 향방을 둘러싸고 관각문인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핵심어: 서거정, 어세겸, 김종직, 황화집서, 관각문학, 집단지성, 문명의식

1. 관각문학의 또 다른 글쓰기 방식, ‘취사·간택(取捨揀擇)’

관각문학은 문학성·예술성에 비해 정치적 효용성과 목적성이 더 중시되는 글쓰기이다. 특히 사대교린(事大交隣) 등 외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그 효용성과 목적성은 더욱 배가된다. 사대교린은 상하 위계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쓰이는 글쓰기에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목적성을 보임과 동시에, 조선의 국격과 문화적 품위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역량이 총동원되는 특성을 보인다.¹⁾

1) 김풍기, 「권위를 생성하는 글쓰기와 변계량의 문장의 문학사적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3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283~285면; 윤재환, 「『皇華集』의 編纂 意圖와 文學的 價値 再考-『皇華集』 逸序文과 『皇華集』 關聯 資料를 中心으로-」, 『고전과 해석』 제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174~178면; 이은영, 「조선시대 表箋연구(1)」, 『한국한문학회』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82~83면. 특히 이은영과 김풍기는 외교의 현장에서 쓰이는 표전(表箋)과 같은 관각문학은 그 완성도나 수준이 국가의 수준뿐 아니라 국격·국익 등과 직결되는 정치적 위력을 가진 장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효용성으로 인해 더 더욱 해당 장르에 쓰이는 공식적 규범의 수립과 그에 대한 철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상당히 타당한 분석이다.

필자는 앞서 15세기의 대표적 문인 김종직과 서거정이 일본 사신의 송별 연이라는 준(準) 외교적 현장에서 창작한 작품을 사례로 그 구체적인 작성 과정과 관각문학 글쓰기의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전기의 관각문학은 젊은 문인이 초고를 작성한 뒤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고위 관료가 초고의 문학적 기초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윤색을 가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시회에 저촉될법한 사소한 표현조차도 꼼꼼히 검열하여 삭제·수정하거나 성종의 인화(仁化)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하며 문장화국(文章華國)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²⁾

본고는 그 후속연구로서, 1488년 발간 『황화집』에 수록된 「황화집서(皇華集序)」를 대상으로 하여 관각문학의 또 다른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려는 것이다.³⁾

“표문(表文)은 문신들에게 짓게 하고 그 가운데 골라 뽑아[揀擇: 밑줄 강조 필자(이하 동일)] 윤색해야 할 것입니다.”⁴⁾

“과거에 사람을 뽑을 때, 한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디다. (중략) 만약 고금의 역사와 사체에 통달하고 식견과 권도(權度)가 있는 자에게 (대제학의) 임무를 맡긴다면, 여러 작품들을 선별해서[取捨] 증감(增減)하고 윤색(潤色)함으로써 사명(詞命)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⁵⁾

인용문은 각각 세종대와 성종대의 신료들이 가지고 있던 관각문학 창작 방식에 대한 견해이다. 표문이나 사명과 같은 외교문서의 엄중한 목적성을 고려하여, 여러 문인이 지은 작품들 가운데 뛰어난 것을 ‘취사(取捨)하고 ‘간택(揀擇)’함으로써 가장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구슬아, 「草創과 潤色,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글쓰기 방식 연구」, 『규장각』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3~17면.

3) 필자는 15세기 관각문학의 단계적 글쓰기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문학적 능력이 뛰어난 노성한 관료들에게 두루 창작을 명하여 작품을 모으고 그중 가장 뛰어난 수준의 작품을 최종 선택하는 방식 역시 활용된 바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구슬아, 위의 논문, 2018, 6면.

4) 『세종실록』 권45, 1429년(세종 11) 7월 18일, “表文, 令文臣製述, 揀擇潤色.”

5) 『성종실록』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9일, “古之取人, 無求備于一夫. (….) 若得通古今, 達事體, 有識鑑權度者, 授其任, 則可以取捨諸作, 增減潤色, 詞命得宜矣.”

『황화집』은 외교 현장에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공식적 성격의 자료는 아니지만, 황제의 명(詔勅)을 전달하기 위해 내조(來朝)한 사신들이 사행 과정 전후에 창작한 시문을 갈무리하여 조선에서 출판해주고 중국 내에서 이를 회람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적 성격을 띤다.⁶⁾ 『황화집』의 핵심은 역시 사신과 접반원 간에 수창한 시문의 질적 수준이겠으나, 제일 앞에 배치되는 서문 역시 황제의 대리자인 사신의 노고에 대한 위무-황제의 돌봐줌에 대한 감사-치교(治敎)의 근거자료인 『황화집』 출판의 당위성-조선 문인들의 문명 의식 등 『황화집』의 출판 목적과 조선 인문의 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⁷⁾

성종대는 『황화집』이 처음으로 출간된 1450년으로부터 대략 한 세대가 지난 시점으로, 앞서 다섯 번의 출간 경험과 권람(權擘, 1457)·홍윤성(洪允成, 1459)·최항(崔恒, 1460)·이승소(李承召, 1464) 등의 「황화집서」 창작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다.⁸⁾ 성종대에는 모두 세 차례 명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내조한 사신은 1476년 황태자가 책봉되었음을 알리러 온 기순(祁順)이었다. 이때 원접사는 대제학 서거정이었다. 사신에게 보낼 『황화집』의 서문을 작성하는 일은 당시의 관각문인들에게 중차대한 일로 인식되었다.

서거정이 아뢰었다.

“기순 등 두 중국 사신에게 지어준 송서(送序)는 김수은(金守溫)과 이승소가

6) 『황화집』의 출간과 시문수창이 갖는 문학적 의미와 특수성에 대해서는 김은정,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한국한시연구』 제7호, 한국한시학회, 1999, 307~308면 참조. 한편, 신태영은 『황화집』을 ‘일종의 기념문집’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신태영,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14면.

7) 대표적 연구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기화, 『『皇華集』의 編纂과 板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신태영, 『『황화집』의 편찬의식 연구-서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5집, 우리한문학회, 2001; 안장리, 「朝鮮 前期 『皇華集』 및 明使臣의 朝鮮關聯書籍 出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어교육학회, 2002; 윤제환, 위의 논문, 2016; 정출현, 「四佳 徐居正의 東國文明 비전과 文章華國의 실천」, 『고전문학연구』 제59집, 한국고전문학회, 2021. 이 가운데 신태영과 윤제환의 연구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황화집서』를 모두 검토하여 서문의 투식적 내용 전개 양상을 밝히고 그것이 『황화집』 찬술의 외교적 목적성과 관계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안장리와 정출현의 연구는 조선전기에 창작된 『황화집서』로부터 조선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사신을 향한 일종의 대결의식을 읽어내어 본고의 착안에 큰 지침이 되었다.

8) 김은정, 위의 논문, 1999, 312면의 표 참조.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화집』의 서문과 발문을 다시 두 사람에게 짓도록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필시 우리나라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청컨대 서문은 신과 강희맹(姜希孟)·홍응(洪應)·이석형(李石亨)·성임(成任) 등에게 짓도록 명하소서.”⁹⁾

인용문은 1476년 4월, 『황화집』 편찬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거정이 성종에게 아뢰는 안건이다. 서거정은 『황화집』의 서문이 조선 인재의 융성함과 문화적 수준을 중국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고 여긴 듯하다. 따라서 깊은 학식과 문학적 역량을 보유한 조정의 중진들에게 두루 서문을 짓게 하고 그 중 가장 뛰어난 것을 간택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¹⁰⁾ 인용문에 언급된 이승소는 1464년 『황화집』에 서문을 수록한 바 있거니와, 기순의 전별연에서 이미 송서를 지어주었다.¹¹⁾ 서거정은 『황화집서』가 출판을 통해 공표되는 자료이니만큼 가급적 송서를 지어준 문인과 겹치지 않게 하여 조선에 많은 인재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1476년본 『황화집』에는 결국 이 가운데 서거정과 이석형의 작품 두 편이 선택되어 둘 다 수록되었다.¹²⁾ ‘취사·간택’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염두에 두면 강희맹의 문집에만 수록되고 실제 『황화집』에는 실리지 않은 『기황화집발(祁皇華集跋)』(『私淑齋集』 권10) 등,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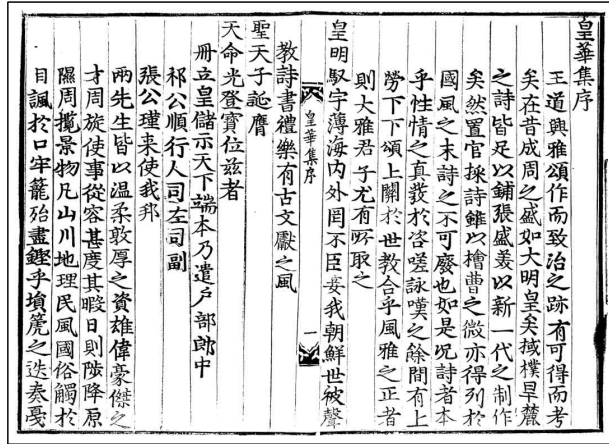
9) 『성종실록』 권66, 1476년(성종 7) 4월 20일, “是日, 居正啓曰: ‘兩天使送行序, 金守溫、李承召製之. 今『皇華集』序跋, 復以二人製之, 則朝廷必以我國唯有二人而已, 請臣與姜希孟、洪應、李石亨、成任等製之.’”

10) 서거정이 이때 취사·간택의 방법을 건의한 것은 명나라가 상국(上國)임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필자가 앞선 연구에서 분석한 김종직과 서거정의 송서 역시 사신의 전별연에서 지어준 것인데, 교린국인 일본에서 온 사신이라는 점, 사신의 신분이 문사가 아닌 승려라는 점에서 굳이 조선 최고의 중진 문인들을 총동원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서거정이 화이질서를 내면화하여 일본 등 주변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고려할 때, 외교의 현장에서 채택하는 글쓰기 방식 역시 그러한 위계적 시선의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 정출현, 앞의 논문, 2021, 147~151면 참고.

11) 이 송서는 『三灘集』 권10에 「送張行人使還詩序」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그 대략적 내용은 명 황제에 대한 사은(謝恩)과 칭송, 사신 온 목적, 사신의 인품과 학식에 대한 칭송 등 「황화집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황화집서」에 비해 사신에 대한 위무와 축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실록의 기사는 4월인데 반해, 서문의 간기는 ‘成化十二年龍集丙申仲春下浣(서거정), ‘成化十二年蒼龍丙申二月晦(이석형)로 차이가 있다. 실제 간행은 1476년 4월 이후이지만, 서문의 간기는 사신들이 돌아간 2월에 맞추어 작성한 결과로 보인다.

문집에는 존재하나 『황화집』에 수록되지 않은 일서문의 존재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된다.¹³⁾



<그림1> 장서각 소장 1476년본 「황화집서」
(청구기호: K4-368, 甲寅字體 訓鍊都監字)

또한, 「황화집서」는 표전에 비해서는 형식적 엄정함이나 제약이 덜하지만 마냥 자유롭게 창작할 수만은 없었다. <그림1>은 장서각에 소장된 훈련도감자본 『황화집』의 권두이다. 바로 서거정이 지은 「황화집서」의 시작 부분이다. ‘皇明’, ‘聖天子’, ‘天命’ 등을 극항(極行)하고 그밖에 조선과 관련한 내용은 두 자 낮추어 쓰는 등 사대문서의 기본 격식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화집』의 서문을 쓰는 자는 전·현직 문형 혹은 훗날 문형인 경우가 많으며, 집반원이나 찬서자(撰序者) 중 한 명은 현직 문형이 담당하였다.¹⁴⁾ 요컨대, 사신의 집대와 후처리에 조선의 문화적 역량이 집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서문의 형식이나 내용은 조선의 문명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선명하게 드러낸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다.

13) 일서문의 존재는 신태영(2005), 안장리(2012), 윤재환(2016) 등에 언급되었으며, 강희맹의 발문, 김종직의 서문, 유몽인의 서문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14) 신태영, 앞의 책, 2005, 32면.

II. 1488년 「황화집서(皇華集序)」의 창작 경위

1488년 음력 2월 25일, 정사 동월(董越)과 부사 왕창(王敞)이 홍치제(弘治帝, 明 孝宗)의 등극을 알리는 칙서와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왔다.¹⁵⁾ 이들은 성종대에 내조한 두 번째 명 사신이었다. 성종은 선황제의 진향사와 진위사로부터 두 사신이 시문과 경학에 뛰어난 문사라는 정보를 얻었으며, 원 접사 허종(許琮)으로부터 이들의 인품과 뛰어난 학문적·문학적 능력에 대해 채차 보고 받았다.¹⁶⁾ 두 사신이 임무를 마치고 서울을 떠난 3월 18일까지 총 23일간, 성종은 조선 최고의 문인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응대하였다.

당시 이조판서였던 허종은 인품과 문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아 1487년 12월, 일직잡치 원접사에 선발되어 사신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¹⁷⁾ 시문 창작 능력이 뛰어난 성현(成愷) 역시 종사관으로 수창에 참여하였다.¹⁸⁾ 물론 사신 접대의 책임자로, 이미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던 대제학 서거정(1421~1488)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1488년 당시 너무 연로하여 긴 일정의 외빈 접대를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서울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무신년(1488)에 한림시강 동월과 공과우급사중 왕창이 사신으로 와서 서거정을 보고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우하였으며, 담론할 때마다 반드시 공수(拱手)하고 일어났다. 망원정(望遠亭)에서 유관(遊觀)할 때 두 사신은 서거정에게, “공은 사문(斯文)의 노선생이신데, 오늘 우리가 공을 수고롭게 하였소.”라고 하였다.¹⁹⁾

15) 『성종실록』 권213, 1488년(성종 19) 2월 28일, “遠接使許琮馳啓: ‘正使左春防右庶子兼翰林侍講董越、副使工科右給事中王敞、率頭目十四人、將賜物櫃私櫃并六、今月二十五日越江。’”

16) 『성종실록』 권212, 1488년(성종 19) 윤1월 23일, “進香使李封、陳慰使卜宗仁來復命。上御宣政殿引見、問中朝事。李封啓曰: ‘臣將還、(…)人言董越等皆能文者也。’” 권213, 2월 29일, “遠接使許琮馳啓曰: ‘正使董越、年五十八、江西贛州人、登己丑進士第二名。副使王敞、年三十六、居南京城內、登辛丑進士。正使性和厚、副使性明察、至於接人、皆恭謹致禮。’”

17) 『성종실록』 권210, 1487년(성종 18) 12월 3일, “下書遠接使許琮曰: ‘天使之來、必不在邇、故諸處宣慰使、皆令上來。萬一天使遽爾出來、義州宣慰使未及往、則令節度使代行。’”

18) 김기화, 앞의 논문, 2008, 33면.

19) 『성종실록』 권223, 1488년(성종 19) 12월 24일, “戊申、翰林侍講董越、工科右給事中王敞奉使來、見居正尊禮待之、每論話必拱手起立。及遊觀望遠亭、兩使謂居正曰: ‘公斯文老先生、今日煩公勞動。’”

인용문은 서거정의 즐기이다. 이 해 노쇠한 몸으로 접빈연에 참여하던 서거정이 두 사신으로부터 얼마나 각별한 예우를 받았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다. 서거정 외에도 임원준(任元濬)·이숙함(李淑瑛)·정난중(鄭蘭宗) 등 조정의 중진 신료는 물론 승지 송영(宋瑛), 병조판서 어세겸과 같은 관각문인들이 성균관에서의 알성례, 한강에서의 연회 등에 참여하여 사신들과 시주(詩酒)를 주고받았다.²⁰⁾

사간 김심(金諶)이 아뢰었다. “듣자 하니 이번에 오는 중국 사신은 모두 문사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문사에 능한 선비를 뽑아서 접대하게 하소서. 전라도 관찰사 김종직이 마침 임기가 바뀔 때가 다 되었으니 올라오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 도의 수령 중에서도 문사에 능한 자들도 함께 올라오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임금께서 “김종직의 개만(箇滿)이 언제인가?” 하시니, 우부승지 성준(慶俊)이 “5~6월 사이입니다.”라고 아뢰었다.²¹⁾

인용한 기사는 1488년 2월, 사신들이 입경(入境)하기 전부터 조정에서 문장 능력이 뛰어난 신료들을 서울로 불러 모으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라도 관찰사로서 나주 등지를 순시하고 있던 김종직 역시 문장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기에 관반의 물망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은 임기 만료까지 3~4개월 가량 남았기 때문에 윤 정월에 이미 연경을 출발한 사신 접대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황화집』의 편찬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었으므로, 성종은 그를 다시 서울로 불러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²²⁾ 그 밖에도 성종은 13세의 어린 세자가 조칙을 맞이하는 의례에

20) 『성종실록』 권214, 1488년(성종 19) 3월 15일, “兩天使詣成均館謁聖. 命都承旨宋瑛、左承旨韓瑗從行. 兩使謁聖訖, 坐明倫堂, 館官儒生以次行禮. 行茶禮後, 天使出, 仍向漢江, 登濟川亭開宴. 達城君徐居正、西河君任元濬、禮曹判書柳曄、兵曹判書魚世謙、僉知中樞府事李淑瑛及館伴許琮、鄭蘭宗、承旨宋瑛、韓瑗、李季男參焉, 酒三巡而罷, 乘舟順流而下, 至楊花渡, 登望遠亭, 又開宴. 天使樂甚, 日暮乃罷.”

21) 『성종실록』 권213, 1488년(성종 19) 2월 14일, “司諫金諶啓曰: ‘今來天使皆善於文辭, 當選能文之士以待之. 全羅道觀察使金宗直今臨遞, 令上來何如? 且諸道守令中能文之士, 亦令上來何如?’ 上曰: ‘宗直箇滿何時?’ 右副承旨慶俊啓曰: ‘在五六月間矣.’”

22) 실제로 김종직은 관찰사 임기가 만료된 5월 한성부좌윤에 1차 임명되었다. 그런데 연보에 따르면 이를 사직하였고, 다시 병조참판 겸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6월, 서울에 올라와 재차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윤택받지 못하였으며, 10월 16일에 한성부좌윤 겸동지성균관사에 제수되었다. 『성종실록』 권216, 1488년 5월 7일 및 권221, 10월 16일 기사; 『점필재집』 부록,

참여하였다가 자칫 미숙함으로 인해 실례할까 염려하여 대신들과 대책을 강구 하는 등,²³⁾ 경륜이 풍부한 두 사신에게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알아보이지 않고자 고심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신은 의주에 도착해서부터 기물의 색상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황제의 상중임을 내세워 기악(妓樂)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엄격하고 고압적인 면모를 드러냈다.²⁴⁾ 사헌부 지평 성세명(成世明) 등 신료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녀들이 길거리에서 사신 행차를 구경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고 건의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종은 다소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천 리의 풍속이 같지 않고, 팔방(八方) 모두 각자의 풍속이 있다. 중조(中朝)에 서는 여악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쓰고 있다. 사녀들의 관광 역시 우리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일 뿐이니 의리상 무슨 해가 되겠는가? 다만 구경할 때 발을 걸어 올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겠다.²⁵⁾

여악 거절은 1450년 예겸의 내조 때부터 으레 있었던 일이거나와 선황제의 상중임을 심분 참작하여 억지로 권하지 말도록 하면서도,²⁶⁾ 조선 고유 풍속을 지나치게 규제하면서까지 그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성종의 생각이었다. 이는 조선 문명에 대한 성종의 자부심이기도 하였다.

『估畢齋先生年譜』 참조.

23) 『성종실록』 권213, 1488년 2월 21일 기사 참조.

24) 『성종실록』 권214권, 1488년 3월 3일·4일 및 7일 기사 참조. 이 기사에 따르면 평양 선위 사였던 이극돈이 성종에게 두 사신의 조선인들이 행례할 때 다소간 실수가 있어도 엄격하게 규거(糾擧)하는 면모를 보인다고 복명하였다. 그러한 규거는 환관이 파견되던 시기의 행례 방식대로 자신들을 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으로, 차후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월이 내조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각종 외교의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빚은 양상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신태영, 앞의 책, 2005, 241~245면 및 이규철, 「조선 성종대 외교의례 변경에 대한 논의와 대명 의식」, 『역사와 현실』 제9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172~180면을 참고하였다.

25)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9일, “司憲府持平成世明來啓曰: ‘今天使之來, 若不禁觀光, 則婦女輩空集雜處, 瞻視不謹. 聞天使嚴整, 非常人之比, 不可以此示之也. 請痛禁.’ 傳曰: ‘天使於沿路, 不令禁觀光人, 今何必禁爲?’ 世明更啓曰: ‘天使雖不禁之, 中朝絕無此風, 禁之幸甚.’ 傳曰: ‘千里不同風, 八方皆有俗. 中朝不用女樂, 我國則用之. 士女觀光, 亦從國俗耳, 何害於義乎? 但觀光時, 或有褻露面者, 禁之可也.’”

26) 신태영, 앞의 책, 2005, 222~229면.

그러나 여악 거절은 서막에 불과하였다. 동월은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때 활용할 의주(儀註)와 관련 도설을 미리 가져오게 하였는데, 추후 의주를 황제께도 주달해야 하므로 사대문자의 격식에 맞추어 ‘殿下’라고 쓰인 부분을 ‘國王’으로 고쳐올 것 등 의주의 내용과 글자 크기는 물론이거니와 실제 행례 절차 역시 『대명집례(大明集禮)』에 맞춰 재점검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다.²⁷⁾

나아가 조서를 맞이할 때 성종이 연(輦)을 타는 것이 『대명집례』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말을 타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조서와 칙서를 동시에 받아왔던 전례를 문제 삼는 등 국왕 성종의 체면을 손상시킬 법한 요구를 무리하게 관철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문례관(問禮官) 권경우(權景祐)를 보내어 재차 설득하였으나 국왕이 말을 탈지 연을 탈지를 임의로 선택하면 자신들은 도보로 들어갈 것인즉, 조서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도보로 들어가고 조서를 받는 조선의 국왕이 연을 탄다면 반드시 중국 조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²⁸⁾ 이에 성종이 어서(御書)로써 연을 타고 조칙을 맞이해온 조선의 고려키 태조 고황제대부터 용인되어 온 것이었다는 점, 이번은 전례대로 행하되 추후 홍치제에게 주달하여 공식적으로 의례를 수정하면 된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원점사 허종도 일국의 국왕을 교외에서 견게 한다면 신민들이 모두 통분해 마지않을 것이라고 재차 호소하였다. 그러자 동월은 마지못해 밤늦은 시각에서야 조서를 맞이할 때에는 연을 타고 칙명을 맞이할 때에는 말을 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²⁹⁾ 조서를 맞이하기로 한 13일, 날이 저무는 시간이 임박해오자 성종이 분노를 참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신들의 ‘거만’한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³⁰⁾ 큰 불상사 없이 예정된 조칙 의례 및 사신 접대를

27)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10일 기사. 특히 “又曰：‘兩件儀註，字畫大小，皆一樣改書來。此儀註當進奏皇帝；其稱殿下處，皆改作國王。’臣答曰：‘當啓殿下’”라고 한 부분에서 관련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8)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12일, “正使曰：‘殿下謂何?’ 臣以事目意，備細開說，兩使曰：‘乘輦、乘馬，殿下任意爲之。吾等當徒步而行。吾等徒行而殿下乘輦迎詔，則朝廷自有是非矣。’”

29)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12일 6번째 기사.

30)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13일 9번째 기사, “命召領敦寧以上，傳曰：‘天使言甚倨傲。雖以詔、勅內事言之受辱，猶爲不可，況非詔、勅內事乎？不可以言語爭詰。今已日晏，而彼之堅執如此，將何以處之?’ (….) 弼齊等啓曰：‘彼既如此，不可相持不決也。當權從所言。’”

마칠 수 있었다.

성종이 조선의 문화적 체통과 관련한 동월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그가 홍치제의 스승으로서 새 황제의 등극과 동시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일차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으나, 무엇보다도 『대명일통지』에 부정적으로 수록된 조선의 풍속에 대한 수정 필요성과 동월이 선황인 성화제(成化帝, 明 憲宗)의 실록 수찬관으로 참여한다는 점 등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었다.³¹⁾ 동월의 내조는 성균관의 학례나 엄정한 상제례 등 조선의 아름다운 풍속과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중국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³²⁾ 그리하여 허종은 성종의 명에 따라 조선의 풍속첩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그것이 동월이 추후에 찬술한 『조선부(朝鮮賦)』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³³⁾ 실제로 동월은 귀국한 뒤 홍치제에게 복명하면서 성종의 인품과 학식을 칭송하는 한편, 허종 등 조선의 집반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³⁴⁾

한편, 동월이 사행길에 시문을 지었다거나 『황화집』 편찬을 요구하였다는 기사가 실록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반송사 허종이 4월 25일에 두 사신이 지은 시축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 이들이 『황화집』의 편찬에 어느 정도 관심은 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⁵⁾ 통상 『황화집』은 중국의 사신들이 국경을 넘은 뒤 준비에 착수하여 몇 개월 안에 간행하였으며, 서문을 지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도 있다.³⁶⁾ 동월 일행이 중

31) 신태영, 앞의 책, 2005, 231~233면; 안장리, 앞의 논문, 2012, 358~364면 참조.

32)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18일, “伴送使許琮辭, 仍啓曰: “臣在路上, 與天使言本國風俗. 天使云: ‘修先帝實錄時, 當載之矣.’ 此雖不可信, 使本國美俗傳播中朝, 亦幸矣. 如喪制、職田、再嫁女子孫禁錮事, 令該曹盡錄, 送付於臣, 則臣與天使閑話時, 欲以此囑之.”; 같은 책, 3월 19일, “伴送使許琮馳啓曰: (….) 天使語臣曰: ‘前者詣成均館時, 請書學令以來, 今來否?’ 臣答曰: ‘已書來矣.’ 兩使即令取來, 看了, 謂臣曰: ‘儘好! 此本國大段美事也.’”

33) 『성종실록』 권214, 1488년 3월 20일, “下書于伴送使許琮曰: ‘我朝良法美俗, 今錄去, 如卿所啓. 其以是囑天使.’”

34) 성종은 성절사 채수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 『성종실록』 권219, 1488년 8월 24일, “聖節使蔡壽還自京師. (….) 壽曰: ‘日者董越、王敞還朝, 盛稱殿下爲賢主, 且稱許琮爲賢宰相.’”

35) 『성종실록』 권215, 1488년 4월 25일, “伴送使許琮來復命, 仍啓曰: ‘天使於一路, 言必稱賢王, 稱贊不已. 及越江入遼東迎帳, 語都指揮曰: ‘國王賢明, 在廷臣僚皆秉禮謹恪, 與中國無異. 但女人衣服首飾, 與中國頗異耳.’ 因進天使所製詩軸.”

36) 『중종실록』 권84, 1537년(중종 32) 3월 17일, “正使曰: ‘我聞國王, 命大臣撰皇華集, 又令作序云. 其所作序者, 欲預知而去矣.’ 上曰: ‘皇華集, 例於越江後, 以其詔使之製及陪臣所製, 聚而印出送之. 序則左議政金安老製之矣.’”

국으로 돌아간 뒤, 조선은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최부(崔溥)를 쇠환하기 위해 7월에 파견한 사은사 성현이나 7월 30일 황제의 탄신을 맞아 파견한 성절사 채수 편에 『황화집』을 보낼 수도 있었으나 시일이 다소 촉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⁷⁾

특히 성종으로서는 조선 고유의 풍속이나 각종 고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동월로 인해 개인적 자존심은 물론 국가적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였을 듯하다. 비록 동월이 황제에게 긍정적으로 주달하였을지라도, 두 사신은 물론이거니와 연경의 여러 문신들에게 회람되는 『황화집』³⁸⁾을 통해 무너진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차후에 내조할 사신들이 조선을 더이상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생겼다.³⁹⁾

아울러 조선은 또다른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였는데, 바로 오랫동안 문단을 장악해 온 서거정이 노쇠해져 감에 따라 그의 후임 문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제학 임명은 전임 대제학이 후임 대제학을 천망(薦望)하면 그대로 낙점하는 관례를 따르는데, 그럼에도 제술 능력 등을 확인하고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원접사와 찬서자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문형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참고할 때, 원접사였던 이조판서 허중, 3월 서울에서 사신을 접대한 병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 어세겸, 6월에 서울로 돌아온 한성부좌윤 겸 동지성균관사 김종직이 물망에 올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종은 이 세 명과 함께 당시 문명이 있었던 노공필(盧公弼) 등의 여러 문신에게 「황화집서」를 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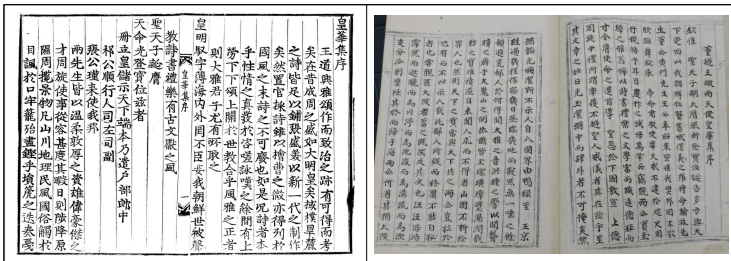
37) 1488년 『황화집』은 10월 무렵에 편찬되었다. 「황화집서」 간기, ‘弘治元年蒼龍戊申冬十月下漸 38) 『세조실록』 권11, 1458년(세조 4) 윤2월 7일, “陳高等凡所見雜興, 一寓於詩, 合若干首, 并本國人所和, 印而贈之, 名曰皇華集, 其後中朝人因本國人赴燕京求之者頗多, 輒印送之.”

39) 훗날 이때의 일을 회상한李克增 등은 동월이 조선에 대해 예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깎보았기에 군신 모두가 통분을 금치 못할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 이후 황제가 새로 제정한 의주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신 가운데 소인에 가까운 자들이 조선을 더욱 알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성종실록』 권266, 1492년(성종 23) 6월 1일, “臣意彼以我國爲海外小邦, 必無知禮之人, 故敢爲此也. 臣不勝痛心, 請於正朝, 擇遣知禮大臣, 博考古例, 賫兼迎詔勅議註, 就禮部, 辨其是非, 則必有歸一之論, 設使以別迎詔勅之儀爲是, 定其恒式, 此即皇帝之命, 在所當從, 不然, 臣恐如艾璞浮淺小人, 陵轍本國者多矣.”

40) 서거정의 후임 문형 천거와 관련된 내용은 구슬아, 「가리어진 문형(文衡)-어세겸(魚世謙)의 삶과 관각산문 연구」, 『동서인문학』 제60권,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8~20면 및 30~35면 참고.

하라는 명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현전하는 것은 어세겸과 김종직의 작품인데, 최종 간택을 받아 『황화집』에 등재된 서문은 바로 어세겸의 것이었다. 1476년본 『황화집』에 두 편의 서문이 수록된 것과 달리, 김종직의 작품은 채택되지 않은 채 그의 문집에만 수록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세겸은 서거정이 같은 해 12월 24일에 사망한 이후 그의 후임 문형으로 임명되었다.41)

그런데 필자는 어세겸의 문집 『함중세고(咸從世稿)』(규장각 소장 필사본, 청구기호: 奎4190-v.1-4 / 驪江出版社 영인본, 1987)에 「동월왕창양천사황화집서(董越王敞兩天使皇華集序)」라는 제목으로 실린 서문의 내용과 1488년에 간행된 『황화집』(장서각 소장 갑인자체 훈련도감자본, 청구기호: K4-372)에 「황화집서(皇華集序)」라는 제목으로 최종 등재된 서문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42) 취사와 간택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중진 관료의 작품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윤색을 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어세겸의 초고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윤색되었는지, 또 김종직의 초고는 어떤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는지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5세기 외교의 현장에서 쓰이는 관각문학 글쓰기의 특징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듯하다.



<그림2> 장서각 소장 1488년본 「황화집서」

<그림3> 규장각 소장 『함중세고』 권9 「황화집서」

41) 어세겸이 제술 능력의 부족 등을 근거로 임명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릴 때에도 이들을 거론하였다. 『성종실록』 권224, 1489년(성종 20) 1월 1일, “咸從君魚世謙來啓曰：(…) ‘又如許琮、金宗直、於文章無所不通、所學淵源、此真高古之才也。捨許琮、宗直而置臣於此地、則非徒有物論、於國家事體何如?’”

42) 구슬아, 앞의 논문, 2021, 39면.

III. 어세겸의 「황화집서」: 초고와 윤색고의 대비

관각문인으로서 어세겸은 제술에 필수적인 변려문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감각을 그 안에 적실하게 풀어내는 등 외교 사명에 특장점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표전 및 주의(奏議)류의 창작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어휘나 표현방법 등을 자신의 관각 글쓰기에 활용하였다.⁴³⁾ 이 장에서는 어세겸이 지은 두 편의 「황화집서」 가운데 문집에 수록된 것을 ‘초고’, 『황화집』에 최종 수록된 것을 ‘윤색고’로 구분하였다. 내용에 따라 원문을 모두 4단락으로 나누고 그 차이를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표에 비교 제시하였다. 단락별로 유사한 문장에는 번호와 밑줄을 더하여 강조하였으며, 내용상 유사하되 표현상의 차이가 크면 ‘ ’를 더하였다.⁴⁴⁾

<표1> 「황화집서」의 초고와 윤색고

단락	『함중세고』	『황화집』
1	欽惟聖天子，嗣大曆服，新登寶位， <u>①誕告多方，與天下更始，以我朝鮮，仁賢舊域，禮義之邦。</u> ②特命翰林先生董公，黃門先生王公，奉詔來宣。 ③惟我弊邦，罔不歡欣蹈舞，欽承帝命，肅敬使華，天威不遠於咫尺，周行親接乎耳目，慶抃之誠，倍萬常品。	皇帝位九五之初， <u>①大誥四方萬國，與天下更始，以我國，世守侯度，秉禮惟舊。</u> ②於是，選於朝以右春坊右庶子兼侍講董公爲之使，貳以工科右給事中王公，捧綸音，沛鴻恩。 ③我殿下對天威如咫尺，敬使華之文雅，肅敬將禮，既謂左右若曰： ① “帝眷小邦，今茲繼統出政之始，而特命經幄之臣金閨之彥，始兩公者來，覃施德意，使我東人，有所矜式，其爲賜重矣。然兩公不可留，則其所留詩若文，宜取以爲集，以壽其傳，以萬景仰之思。”仍命臣序之。
2	竊觀兩公，資圭璋之雅器，飾以詩書禮樂之文，學富而識遠，德鉅而才全，膺使命之選， <u>A首導皇恩於下國，敷宣上德，周旋中禮，所謂率履不越，皇人威儀者，其在茲乎！至其文章之妙，日光玉潔，彌中而建外者，不可掩矣。</u>	<u>A’</u> 臣竊見雙鳳聯翽，口啣芝詔，出自丹霄，止於青丘者，兩公之儀度也；珠璣錯落，卷軸連車，提封萬里，盡入牢籠者，兩公之詞藻也。則兩公雖不可留，而兩公之所留者，大矣。臣嘗讀詩，至皇皇者華，則知遣使之重，四牡

43) 구슬아, 앞의 논문, 2021, 25~33면.

44) 「황화집서」 초고의 번역은 구슬아, 위의 논문, 2021, 39~41면에 실려있다. 본고에서는 불필요한 반복과 인용을 피하고자 윤색고의 번역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고자 한다.

	<p>然猶韜光晦潔，靳不示人。自入國界，由鴨綠至王京，經過幾程，信宿幾日，登臨幾地？而寂然無一唾之餘韻，遐荒鄙人，於何得聞大雅之音，洪鍾之響，以開聾聵之癖乎？</p>	<p>駢駢，則知勞使之切。且孔聖以使於四方，不辱君命，爲士之才，古之人，未嘗不以使職爲難。而能稱其職者，蓋鮮，雖有能稱其職者，能賦其雅章，而彰國家之盛美者，尤亦鮮矣。</p>
<p>3</p>	<p>④夫崑山之側抵鵠，皆玉琮璜璋璧，溫潤截肪之寶，堆積溢日，未聞人求而不得者，山固不斬於界人也。然則天下之寶，當與天下共之，兩公豈私於已有，而不以示人哉？此鄙人所疑，而終果不能自秘者也。</p> <p>⑤嘗觀匯大陂者，畜之既深，及其決也，汪汪浩浩，霏然而逝，醴而爲川，渟而爲池，濼而爲溝，蹠而爲洫，支分派別，莫極其終而歸于海。兩公所著，其猶大陂之決乎，何其浩瀚而莫之涯乎！所以擅一代之制作，集大成之條貫，固非鄙人之所能列也。雖然，甘棠尙勿剪伐，嘉樹猶加封植，兩公之竣事而還，浩然其歸，曾不少留，儀容不可再接，言論不可再聞，所尙存者，咳唾之遺音，況其情志之發，終不可謏者乎？</p> <p>⑥玩其詞，想其人，宛然如奉一榻之間，以承訓迪之聲，豈但爲甘棠嘉樹而已哉！我殿下所以拳拳焉，命壽之印局，留爲小邦之珍，使今之人後之人，知大陂之蓄，其決也如是，而琮璜璋璧，溫潤而截肪者，不必遠求諸崑山之麓，而一目之頃群玉備矣。⑦昔周之宰天下也，王人下聘列國，則或賦其群臣，以觀其志，然則小邦之蕪詞荒韻，不得不效於左右，而燕石之諛，庸得免乎？</p> <p>①”噫！始者終之準也，觀其始可以知其終，新嗣大業，天子出政之始也，誕布明詔，使臣頒政之始也，上有聖天子，爲之出政，以誥四國，下有賢使臣，爲之頒政，以視三韓，而吾東方深有望於終矣。B 兩公既以經濟之學，知遇聖明，論思贊襄，筮鑄治道，措斯世於泰和之盛，此乃東人之望也，豈徒東人之望？蓋亦天下之望也。因天下之望，盡股肱之道，亮舜其君民，賡歌一堂，協和萬邦，使吾東方，亦囿於一視之仁，而樂其有終，豈不偉哉！</p>	<p>今兩公，溫厚之資，宏偉之器，加之以積學之功，涵養之深。所際者，文明之時；所處者，清切之地。</p> <p>A”故其施諸事也，言中度而行中禮，其發於詩也，雄渾而雅精，深而暢，雍雍乎，足以鳴大雅之隆。</p> <p>B’噫！兩公之來也，益有以知聖朝人才之懿，治教之休。而兩公使乎之才，無讓於皇華四牡之大夫矣，豈但使四方，不辱君命云乎哉？而況江都經術，世稱其醇；河汾道學，講之有素，將見已事。西歸敷奏彤墀，錫三接之榮，慰萬里之行，由是而躡台階，調玉燭，筮鑄治道，黼黻皇猷，翹足可俟。</p>
<p>4</p>	<p>C 嗚呼！雅頌之不作，久矣，麟鳳之不出，甚矣。幸今聖神在上，而黼黻之才，金石之用，有如兩公者存焉，治已定矣，化已洽矣，制禮</p>	<p>C’若夫采詩置官，王者所以觀風俗，考得失也，然而有天下之作，有一國之作，有周之盛，有皇矣大明之雅。而聖人採之，不遺乎曹檜之</p>

<p>作樂，賁飾太平，使鳳儀于庭，麟出于野，此其時矣，安得因風，一呼以寄聲於寥廓，以相聞也。</p>	<p>風。吾東方，藐在荒服之外，因是編之行而得列於皇明風雅之末，使天下後世，知東方之有國，亦得漸濡於皇明聲教之中也。如是，臣謹筆之以弁卷首。弘治元年，蒼龍戊申冬，十月下澣，資憲大夫兵曹判書兼世子右賓客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魚世謙謹序。</p>
--	--

전반적으로 초고의 논점이 유지되는 가운데, 초고에 비해 윤색고의 분량이 더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단락의 경우 분량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내용상의 핵심도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윤색의 주체가 어세겸 자신인지, 혹은 대제학 서거정을 위시한 조정 율력 관각문인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선, 어세겸은 초고의 1단락에서 사행의 이유를 서술하며 새로운 천자가 조선을 예의지국으로 인정하고 한림학사를 사신으로 보내 주며 예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4구를 중심으로 한 배비구와 7-7구의 대구를 리드미컬하게 배치하는 변체(駢體)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표전의 장르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欽惟聖天子，嗣大曆服，新登寶位，誕告多方，與天下更始，
 ○●○○ ●●●● ○●●● ●●○○ ○●○○
 以我朝鮮，仁賢舊域，禮義之邦，特命翰林先生董公，黃門先生王公，奉詔來宣
 ●○○ ○●●● ●●○○ ●●○○
 惟我弊邦，罔不歡欣踴躍，欽承帝命；肅敬使華，天威不遠於咫尺；周行親接乎耳目，
 ○●○○ ●●○○●● ○●●● ●●○○ ○●○○ ●● ○●○○ ●●
 慶抃之誠，倍萬常品，
 ●● ○ ●●○○○ ○ 평정 / ● 축성

변려문의 평측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았으나, 대구(對句) 상대 글자 평측 교체 등은 충실히 이행하였다. 어세겸은 1단락의 의경을 전개하는 데 1457년에 권람이 지은 「황화집서」를 대거 인용하였다.⁴⁵⁾ 권람 역시 「황화

45) 권람, 「황화집서」, 『동문선』 권94, “欽惟皇帝，應天順人，再撫瑤圖，大誥中外，與天下更始，一視同仁，罔間內外，於是，翰林陳公，太常高公，使來于我，勅諭丁寧，錫賚稠重，我殿下感天子之德，重使命之大，凡所待遇，悉敬以禮。”

집서」의 서두에서 황제가 ‘內外」를 구분하지 않고 ‘一視同仁」의 질서를 표방하는 가운데 조선을 포함시켜 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이때 조선을 일컬어 ‘弊邦」이라는 비칭을 쓰거나 천자에 대한 존경심을 ‘慶抃之誠」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상국에 바치는 표전에 주로 활용되는 어구이다.⁴⁶⁾ 비칭은 이 작품의 독자가 명 황제라는 전제하에 사용된다면 가하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나친 겸칭으로 비칠 우려가 있었다. 윤색고를 통해 그와 같은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㉔ 황제께서 막 제위에 오르심에 사방 만국에 크게 혼시하시며 천하와 함께 혁신하셨다. 이때 우리나라가 대대로 제후의 법도를 준수하고 옛날과 같이 예의를 잘 지킨다고 여기셨다. 이에 조정에서 우춘방우서자겸시강 동공을 정사로, 공과우급사중 왕공을 부사로 선발하고 윤음을 받들게 하여 크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전하께서 천자의 위엄을 지척에서 대할 수 있으셨다. 사신들의 문아(文雅)를 흠복하시고는 공경히 예로 받들어 좌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황제께서 이 소망을 돌봐주시니 이번에 제통을 계승하여 정사를 출범하시기 시작할 때에도 특별히 경약(經軹)과 금궤(金闕)의 신하에게 명하시었다. 비로소 두 공이 와, 널리 은덕의 마음을 베풀어 우리 동국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내려주신 은혜가 막중하다. 그러나 두 공께서 이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 남겨두신 시문을 모아서 문집으로 만들어 후대에 전함으로써 존경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신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게 하셨다.

윤색고는 형식상 일부 4-4, 3-3 등의 대구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산체(散體)에 더 가깝다. 의경의 전개는 초고와 대동소이하나 동월과 왕창의 관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초고와 달리 『황화집』의 편찬을 명하는 성종의

46) 구슬야, 앞의 논문, 2021, 40면. ‘天威不遠於咫尺’과 같은 표현은 사신을 통해 황제의 조칙이나 은혜를 입음으로써 황제의 위엄과 은혜를 실감할 수 있다는 『춘추좌씨전』의 ‘天威不遠顔咫尺’(僖公9년)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후 표전에서 두루 쓰이게 되었다. 이승인, 『請承襲表』, 『도은집』 권5, “顯望上恩, 對天威於咫尺.”

또한 ‘靑丘’, ‘荒服’, ‘弊邦’, ‘小邦’, ‘遐裔’ 등의 표현은 모두 표전에 투식적으로 사용되는 겸사 내지 비칭이다. 표전에 이처럼 최대한의 겸사가 쓰이는 까닭은 ‘이토록 부족한 조선’을 넓은 은덕으로 보살펴주는 명 황제에 대한 칭송으로 이어지는 표전 특유의 내용 구성 때문이다. 이은영, 『조선시대 표전(表箋) 연구(2)』,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483~484면.

목소리를 가설하여 『황화집』 출간의 당위성을 설명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고에서는 전고를 두루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윤색고에서는 첫 문장부터 『주역』(‘九五’)과 『서경』(‘大誥’) 등의 경전을 활용하여 전이한 미감을 과시하였다. ‘經幄之臣, 金閨之彦’은 1464년에 이승소가 찬술한 「황화집서」에 쓰인 표현을 활용한 것이며, ‘東人有所矜式’ 및 사신들의 시문을 모아 책으로 엮어 영구히 전수하겠다는 의경의 전개는 권람의 「황화집서」⁴⁷⁾에서 인용하였다.⁴⁸⁾

이 과정에서 조선은 공자가 살았던 옛 지역으로 그 교화를 입어 예의지방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仁賢舊域, 禮義之邦)이나⁴⁹⁾ ‘폐방’이라고 자칭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다. 조선은 대대로 ‘제후’의 도리를 지켜온 한결같은 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한 것이다.[以我國, 世守侯度, 秉禮惟舊] 이는 홍치제 이전부터 조선이 명의 제후국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받아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으며, 사대와 관련된 의례 역시 충실히 이행 해왔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조선은 명초부터 사대의 예에 어긋남이 없고 명에 파견하는 사신이나 접반원들의 문학적 수준이 출중하였기에 ‘예의지방’이나 ‘文憲之邦’으로 일컬어져 왔다.⁵⁰⁾ 굳이 윤색할 필요가 없었던 이런 심상한 구절조차 조선의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47) 권람, 앞의 글, “唯在盡誠敬以待兩公, 而兩公終不可得留. 公去而所不去者, 公之文章也, 今雖播人耳目, 久必湮沒. 其令書局裒集, 以傳永久, 俾吾東人有所矜式, 亦有以知中原文獻之美也.”

48) 한편, 윤색고의 2단락에서는 두 사신의 단정한 위외와 그 시문의 아름다움을 정연한 배비구와 대구의 형식으로 집약함[口啣芝詔, 出自丹青, 止於青丘者, 兩公之儀度也; 珠璣錯落, 卷軸連車, 提封萬里, 盡入牢籠者, 兩公之詞藻也.]은 물론 『시경』의 「皇皇者華」 및 「四牡騤騤」를 인용하여 사신들이 명나라의 융성한 문운을 상징하는 존재임을 칭송하였다. 특히 정사와 부사를 「雙鳳」에 비유하며 이들의 군자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는 표현 역시 이승소의 「황화집서」에서 상당 부분 차용하였다. 이승소, 「황화집서」, 『삼탄집』 권10, “於是, 太僕金先生, 舍人張先生, 亦以待從之貴, 出膺專對之選, 雙鳳聯翩, 止于海東, 敷暢綸音, 大霑鴻恩, 周旋升降, 充乎有容, 可謂樂只君子, 邦家之光也已矣.” 그밖에 사신들이 조선의 도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찬술한 시문이 수레에 넘쳐난다는 표현 역시 전술한 권람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隨有所感, 必寓吟嘯, 形諸賦詠, 不一而足. 珠玉璀璨, 盈于卷軸, 流輝騰彩, 和氣藹藹, 提封萬里, 山川草木, 亦興榮焉.”

49) 『전한서』 「지리지」,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 【顏師古注, “言欲乘桴筏而適東夷, 以其國有仁賢之化, 可以行道也.”】”

50) 구도영, 「조선 전기 조명(朝明)외교관계의 함수, 예의지국(禮義之國)」, 『대동문화연구』 제8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174~193면.

성종대의 관각문학을 주관하고 있던 서거정은 외국으로 사신 가는 동료들에게 지어준 송서나 1476년본 「황화집서」에서 절정의 수준에 달한 동국 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조선의 드높아진 위상에 기반한 화이관을 피력하였다. 동아시아에 화이질서가 확고하게 구축된 가운데 조선이 명과 일본 사이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근거가 중화문명에 버금가는 조선의 문화적 주체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⁵¹⁾ 서거정이 주도하여 가던 이러한 문명의식의 흐름을 고려할 때 어세겸의 초고는 대제학 서거정의 검토를 거쳐 윤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된다. 두 사람은 개인적·정치적으로 친연성이 깊을 뿐 아니라, 어세겸은 훗날 서거정의 문예관을 계승해 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⁵²⁾

예컨대 어세겸은 초고의 2단락에서 두 사신의 학문과 인품을 칭송하고 이들을 치켜세우면서, A에 쓰인 것과 같이 조선을 ‘下國’이나 ‘遐荒’으로 비칭하고 조선의 인재들에 대해서는 ‘먼 교외에 사는 비루한 사람[鄙人], ‘우매한 귀머거리[驢驥]’로 표현하였다.⁵³⁾ 반면, 윤색고에서는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스스로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전면 삭제하였다. 해당 어구는 표전에 널리 쓰이는 투석인 것은 틀림없으나 두 사신이 조선의 체면을 구길 정도로 과도한 트집을 잡아 군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선에서 이토록 과도하게 스스로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이 오래도록 제후국에 걸맞은 의례를 시행하여 왔다는 표현⁵⁴⁾ 역시, 2장에서 상술한바 조칙례의 과정에서 동월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정중한 항의의 의도와 조선에서 시행해 온 전례에 대한 자부심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색고의 밑줄 그은 대목은 본래 초고의 3단락 말미에 삽입된 내

51) 정출현, 앞의 논문, 2021, 146~154면. 이에 따르면 서거정은 ‘동국문명에 대한 비전 및 그 구현방식’의 측면에서 변계량 등의 선배세대와 결정적으로 분기된다. 양성지나 변계량 등의 선배세대는 조선을 제후국이 아닌 ‘荒服’의 나라로 규정하고 사대례 역시 이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서거정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부정했다는 것이다.

52) 구슬아, 앞의 논문, 2021, 33~37면 참고.

53) 구슬아, 앞의 논문, 2021, 40~41면 참고.

54) 서거정은 1476년의 「황화집서」(『사가문집』 권4)에서 이를 “我朝鮮世彼聲教, 詩書禮樂, 有古文獻之風.”으로 표현하였다.

용을 일부 삭제하여 활용한 것이다. 초고의 해당 단락은 다음과 같다.

㉠ 아야! 시작이라는 것은 마칠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니, 시작을 보면 그 끝이 얼마나 훌륭할지 알 수 있다. 대업을 새로 계승하신 것은 곧 천자께서 정치를 출범하는 시작이요, 조서를 두루 반포하는 것은 사신이 정사를 알리는 시작이다. 위로 훌륭하신 천자께서 정사의 출범을 사방 각국에 고하고, 아래로 어진 사신들이 삼한(三韓)에 정사를 반포하니 우리 동방에서는 이를 통해 그 훌륭한 끝마침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초고의 이 문단은 두 사신의 출중한 능력에 대해 칭송한 뒤에 갑작스럽게 내용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맥락상 뛰어난 두 인재를 통해 명나라의 태평성대와 인화의 융성함이 지속되리라고 축원하는 15세기 관각문학 특유의 시운론(時運論)과 관련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지만, 홍치제가 황위를 계승하여 정사를 출범하는 초기에 ‘其終’을 논한다는 것은 앞뒤에 언급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수신자인 명 문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의 여지를 남길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윤색고에서 ‘始終’과 관련된 구절을 모두 삭제하고 성종의 목소리를 새로이 가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⁵⁾

초고와 윤색고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단락이다. 초고 ㉢단락 후반부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소 장황하나마 ㉣부터 ㉦까지의 번역문을 윤색고와 비교검토 해보고자 한다.

㉠ 곤륜산 근처에서는 까치를 잡을 때 옥(玉)·중(琮)·황(璜)·장(璋)·벽(璧)처럼 빛나는 보배를 쓴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눈에 차고 넘치니 사람들이 구하려고 할 때 구하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는 곤륜산이 진실로 사람들에게 보배를 주기를 아끼지 않은 까닭이다. 이처럼 천하의 보물은 마땅히 천하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데, 두 공께서 어찌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비루한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과연 끝내 숨길

55) 조선전기의 관각문학은 단계적 창작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의 유기적 연결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여 핵심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구슬아, 앞의 논문, 2018, 28~30면.

수는 없을 것이다. 회수(匯水)라는 큰 못을 살펴보면 물이 온축된 것이 매우 깊 으면서도 물결이 특 트이면 넘실넘실 패연히 흘러 어떤 것은 냇물이 되고, 고이 면 연못이 되며 깊이 치거나 물꼬를 트면 붓도량이 된다. 이처럼 지류가 나뉘어 끝도 없이 흘러 바다로 돌아간다. 두 공께서 지으신 작품은 마치 큰 못이 트인 듯하니 그 호환함을 어찌 한정할 수 있겠는가? 한 시대의 제작과 집대성하신 조 리는 진실로 우리같은 비루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비록 그러하 나 『시경』에서 감당나무는 자르지 말라 하였고, 『춘추』에서는 좋은 나무를 더욱 기른다 하였다. 두 공께서 임무를 마치고 지체없이 돌아가시어 조금도 만류할 수 없었으니, 그 의용은 다시 뵈 수 없고 말씀도 다시 들을 수 없다. 그래도 남기 고 가신 시문이 있으니 하물며 그 마음과 뜻이 발현된 것을 끝내 잊을 수 있겠는 가? 그 글을 음미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완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소리가 어찌 「감당」과 「가수」 뿐이리오? 전하께 서 그리운 마음으로 인해 인국(印局)에 명하여 우리 소망을 위한 진기한 보배로 남겨 오늘날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큰 못과 같이 온축된 식견이 이처럼 특 트여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종·황·장·벽처럼 빛나는 보물을 멀리 곤륜산까지 가서 구할 필요 없이, 『황화집』을 통해 주옥같은 시문을 한눈에 갖추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옛날 주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때 왕인이 열국에 사 신으로 가면 혹 그 나라의 군신들과 시문을 읊어 뜻을 살폈다고 한다. 작은 나라 의 보잘 없는 시문은 부득이 좌우에서 본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옥이 아닌 연석(燕石)이라는 꾸지람을 어찌 면하길 바라겠는가?⁵⁶⁾

㉔ 지금 두 공은 온후한 자질과 넓고 위대한 기량을 소유하신 테다 축적된 학 문의 공효와 깊은 함양을 더하였다. 두 분이 만난 때는 문명의 시기요, 처한 곳 은 깨끗하고 가까운 조정이다. 그러므로 일을 시행함에 말씀은 법도에 맞고 행 실은 예의에 맞으며 시로 발하면 웅혼하고 아정하며, 깊고도 통창하며, 여유롭고 도 넉넉하여 『시경』 「대아」의 융성함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아! 두 공의 행차를 통해 성조의 인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성조의 치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욱 잘 알겠도다. 게다가 두 공이 견지한 사신으로서의 체주는 「황화자화」와 「사모」에 나오는 옛 대부보다도 못할 것이 없으니, 어찌 다만 사 방으로 사신을 나가 군명을 욱되게 하지 않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더욱이 동공 의 경술은 세상에서 순후하다고 칭송하며, 왕공의 도학은 평소에 강구해 온 것 들이다. 이왕의 일을 살펴보고 서쪽으로 귀국하여 황궁에 자세히 아뢰면 세 번

56) 구슬아, 앞의 논문, 2021, 41면에 수록된 번역문을 수정하고 생략된 부분의 번역을 더하였다.

접견하는 영광을 내려주실 것이요, 만 리의 행차를 위로해 주실 것이니 이로부터 재상의 지위에 올라 사시의 기후를 고르게 조화하여 치도를 화락하게 보필하고 조정을 보좌하게 될 것임을 발꿈치를 들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③단락은 동월과 왕창의 인품과 식견을 칭송하는 대목으로 「황화집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다. 초고와 윤색고 모두 ②단락에 언급된 사신의 위외와 문장에 대한 개략적 언급을 계승하여 의경을 전제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표1>에 드러나듯, 어세겸은 초고의 ②단락에서 이미 사신들이 뛰어난 기량을 숨기고 드러내 보이지 않았으며 사행의 과정에서 지은 시문조차 간행하려 하지 않았음을 서술한 바 있다. 초고의 ③단락에는 큰 재주를 하찮은 데 쓴다는 『염철론(鹽鐵論)』의 진고 및 ‘匯水’의 비유를 통해⁵⁷⁾ 같은 내용을 재차 계승하고 있다. 이때, 두 사신이 창작한 시문[玉]을 칭양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문사들이 수창한 시문의 수준을 ‘小邦之蕪詞荒韻’ 및 ‘燕石’으로 한껏 낮추는 한편, 두 사신들에게 질정 받아 마땅한 것[效於左右, 而燕石之誥, 庸得免乎], 즉 평가의 대상으로 격하하였다.

권람-이승소-이석형-서거정 등이 찬술한 「황화집서」에도 사신에 대한 칭송은 빠짐없이 삽입되나, 그들의 개인적 능력과 인품을 칭송하는 데 이처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사례는 없다. 『황화집』은 두 사신의 시문을 사적인 차원에서 편찬해주는 것이 아닌, 양국 인문의 수준을 보여주는 풍교의 자료로 삼기 위해 편찬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승소가 사신의 전별연에서 찬술해준 송서에서조차 사신들이 사행의 과정에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고 황제의 풍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칭송할 뿐이었다.⁵⁸⁾

반면, 윤색고에서는 정밀한 대구를 활용하여 두 사신의 자질과 기국을 칭송하였다. 조선의 문학적 수준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 역시 모두 삭제하였다. 초고에는 비유적 표현이 지나치게 장황한 데다 문단의 맥락이 유

57) 구슬아, 위의 논문, 2021, 41~42면.

58) 이승소, 「送張行人使選詩序」, 앞의 책 권11, “先生奉芝檢宣綸命, 貌莊而和, 辭簡而暢, 周旋登降, 咸中規度, 使人起敬, 可謂使於四方, 不辱命者矣. (….) 予惟男子生而射六矢, 示有志于上下四方也. 昔太史公周遊海內, 歷訪名山大川, 以盡天下之壯觀, 故其吐而爲文章, 疏蕩奇偉, 人莫能及. (….) 則其動於中而見乎文辭者, 必將日大以肆, 雄放清麗, 可以鳴國家之盛矣.”

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비유적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일부 구절을 다른 단락으로 옮겨 배치함으로써 문단의 유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②단락 말미에 언급한 『시경』의 「황황자화」 등을 재차 언급하여 두 사신을 통해 명나라의 인재 양성과 치교의 융성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시운론을 문면에 정확하게 드러냈다. 이에 따라 글의 논점이 두 사신에 대한 칭송이 아닌, 학식과 도량을 겸비한 인재를 파견해 준 명나라 조정의 외교정책에 대한 칭송-두 사신이 조선에서 쌓은 견문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 경륜의 자료로 삼는다면 장차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 및 당부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사신이 황제로부터 받은 후의와 미래에 대한 축복은 이석형의 「황화집서」에서 인용하였다.⁵⁹⁾

㉠ 아야! 아송(雅頌)이 지어지지 않은 지 오래이고 걸출한 인재가 나오지 않은 지도 오래이다. 다행히 지금 훌륭한 천자께서 위에 계시고 경륜을 보좌할 제주와 금석 같은 시문을 보유한 두 공 같은 분이 있으니 치교가 넉넉히 안정되었다고 하겠다. 예악을 제정하여 태평성대를 꾸미니 봉황 같은 사람들이 조정에 나타나게 하고 기린이 들에 나오게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로다! 어떻게 하면 바람을 타고 한 번 외쳐 하늘 멀리 소리를 보내고 들을 수 있을까?

㉡ 채시의 관직을 둔 것은 국왕이 풍속을 관찰하여 정치의 득실을 상고하기 위한 것이다. 천하의 작품이 있고, 일국의 작품이 있으니 주나라의 융성함은 「황의(皇矣)」와 「대명(大明)」과 같은 대아(大雅)에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성인이 시를 채록할 때 조풍(曹風)과 회풍(檜風)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리 동방은 멀리 황복(荒服)의 바깥에 있으나, 이 책자의 간행을 계기로 황명의 풍아의 끝에 자리하여 천하 후세로 하여금 동방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고, 또한 황명의 성교 안에 무뎠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로다.

초고는 ④단락에서도 두 사신의 능력에 대한 칭송을 일부 변주하여 반복하고 홍치제의 치세가 안정기에 들었음을 축원하며 그 성교를 조선에서도

59) 이석형, 「황화집서」, 『동문선』 권95, “皇明氣化之盛, 他日躡臺階, 調玉燭, 盛化流行, 蒸爲太和, 皇明大雅之作, 將於兩君子期焉.”

듣고 따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맺었다. 반면, 윤색고에서는 ③단락의 논지를 계승하여 『황화집』 편찬이 채시관풍(采詩觀風)의 『시경』 정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한편, 『황화집』이 조선 문명의 빼어난 수준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수단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의경 전개는 1464년 이승소로부터 시작되어 서거정의 서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바 동국문명의 자부심에 기반한 화이질서 내재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이상, 초고와 윤색고의 대비를 통해 어세겸은 표전 등 관각문학의 창작 전통과 표현을 심분 활용하였으나, 절정에 이른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전혀 표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윤색고는 불필요한 비유와 과도한 반복적 표현, 장황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간 축적된 「황화집서」의 전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표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명나라에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제학 어세겸은 이미 조정의 증진급 관료였으므로, 「황화집서」의 초고는 적어도 서거정 이상의 관록을 가진 대문호 혹은 성종의 검열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대적 표현이 대거 삭제되는 등 문명의식과 관련된 심상한 표현조차 모두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화이질서가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대와 아부에 가까운 사신 칭송이나 조선의 문학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은 1488년 당시 조선의 관각문인들에게 아직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⁶¹⁾

60) 정출현, 앞의 논문, 2021, 154면. 한편, 앞서 초고에 쓰인 조선에 대한 비칭을 모두 삭제한 것과 달리 이 대목에서는 ‘황복’이라는 표현이 수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황화집』이 명 실록에 수록되기를 바라는 공손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적합해서이거나, 심상히 보아 넘겼기 때문인 듯하다.

61) 애초에 필자는 「황화집서」의 최종고가 서거정의 윤색을 거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하였으며, 서거정의 계승자를 자처한 어세겸의 문명의식과 서거정의 문명의식 사이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익명의 심사위원들께서 어세겸과 서거정의 문명의식 사이의 균열이 생기게 된 배경이나 그 균열이 이후 시대에 끼친 영향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다. 본고는 15세기 관각문학의 글쓰기 방식과 수정의 초점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언은 후고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탐구해 나가야 할 방대한 연구제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과도한 해석을 수정하였다. 후속연구 주제 제공 및 엄밀한 용어 사용에 대해 조언해주신 심사위원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IV. 김종직의 「황화집서」: 탈락의 이유

권람부터 어세겸에 이르기까지 「황화집서」는 점차 그 의경전개 및 표현이 규범화되면서 ‘사행의 이유-사신에 대한 칭송 및 황제에 대한 감사, 축원-문학관의 피력 및 『황화집』 편찬의 이유’ 등의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간략히 변주를 가하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 그런데 김종직이 찬술한 「황화집서」는 서두부터 이러한 구도를 과감히 깨뜨리고 있다.⁶²⁾

그가 「황화집서」에서 역대 중국의 사신에 대한 독특한 인물평을 남기고 있음은 여러 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역대 사신 가운데 염탐행위를 저질렀던 인물에 대한 비판과 조선에 호의적이었던 사신에 대한 칭송이 그것이다.⁶³⁾ 신라 사천왕사를 관찰하여 진압책을 펼쳤던 당나라의 예부시랑 악봉귀(樂鵬龜)⁶⁴⁾와 40권의 『고려도경』을 편찬한 송나라의 서궁(徐兢) 등이 ‘염탐’의 부정적 사례로 언급되었고, 예물을 받지 않아 신실한 인품으로 회자되는 여단(呂端)이 귀감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다.⁶⁵⁾

〔2〕 공경히 생각건대, 황명이 천하를 통일하자 해내외(海內外)를 막론하고 사

62) 최항의 「황화집서」는 시운론에 입각한 문장관으로 서두를 열었다는 점에서 순서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張寧皇華集序」, 『太虛亭文集』 권1, “土生天地間, 德業固大矣. 文章特餘事耳, 然自古論世道升降者, 未嘗不以文章之盛衰而卜之, 是何也? 蓋文者, 言之成章而德業之華也, 故和順之積而榮華之發, 彊中彪外, 自不可掩也. 而人才之興, 則實關乎氣化, 夫豈偶然哉?”

63) 안장리, 앞의 논문, 2021, 358~364면; 구슬아, 「김종직 산문 연구-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63~364면. 서거정도 『필원잡기』에 자신이 상대하였던 명 사신들의 인품이나 문학적 수준에 대한 품평을 남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 기록이므로 「황화집서」에 수록한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필원잡기』 권2, “中朝使臣前後來者, 皆文章節義之士, 自陸顯端木孝思祝孟獻以下, 皆可數. 自居正所及見 ~ 盧吳二子之言, 實非公論也.”

64) 『신당서』 등에는 「樂鵬龜」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악봉귀는 중국 내에서도 아부를 일삼았던 간신으로 알려져 있다. 『太平廣記』 권239, 「諂佞 一」

65) 김종직, 「皇華集序」, 『점필재집』 문집 권1, “吾東方, 國於海外, 自漢氏以來, 中國之士, 奉天子之命而來使者, 史不絕書. 其於道途觀覽人物交際之間, 或有所感, 寓形諸賦詠者, 蓋亦不少. 然唐之樂鵬龜, 托以遊賞山川, 而旁行鎮壓之術; 宋之徐兢, 諉之纂述圖經, 而因懷窺覘之謀. 瑣瑣小夫, 烏足尚哉? 其儀觀之偉, 清操之厲, 東人望之如泰山喬嶽, 卽之如冰壺秋月, 至今照映簡策, 稱誦而不置者, 呂丞相端一人而已. 所恨者, 使事之暇, 豈無弄屑咳唾片言隻句之遺者, 而泯泯無傳焉? 是則當時, 不謹於收拾珍藏, 以圖永久, 豈非後人之不幸也歟?”(이상 〔1〕단락) 여단이 예물을 비롯하여 조경에서 제공하는 예물을 일체 받지 않았음은 『고려사절요』 권5, 「문종2년(1078)」조에 상세하다.

방만국이 모두 신하가 되었다. 그중 조선은 대대로 천자의 성교를 입어 번국의 소임을 공순히 지켜 왔다 하여, 큰 경사나 큰 고명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 조선을 위해 사신을 특선하여 성충으로써 편안하게 해 주셨다. 조종조 때에 단목지, 축맹헌, 예겸, 사마순, 진감, 진가유, 장녕, 기순 공 같은 분들이 실로 그 선발하는 대열에 들어 잇따라 조선에 파견되었다. 이 몇 군자들이 갖추신 고매한 학문과 풍부한 문장은 우리 소방의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며, 또한 직접 그분들의 감화를 받은 자도 있다.⁶⁶⁾

김종직은 2)단락에 들어서야 일반적인 「황화집서」 서두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欽惟皇明，混一區宇，四方萬國，無問海內外，悉爲臣妾’까지의 배비구는 변계량(邊계량)이 사신 임무를 마치고 명으로 돌아가는 육옹(陸顛)에게 지어준 송서를 대폭 인용한 것이다.⁶⁷⁾ 이어 조선이 대대로 명 황제의 치교 하에 ‘번국[藩宣]’으로서 사대의 예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강조하고, 명에서는 그런 조선을 예우하기 위해 뛰어난 학식을 지닌 문사들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藩宣之寄’ 역시 변계량의 글에 용례가 보인다.⁶⁸⁾ 「황화집서」라는 제약성을 참작하더라도 김종직의 화이관은 서거정과 상통한다. 특히 조선을 칭하며 ‘東方’, ‘朝鮮’, ‘藩宣’ 등의 어휘를 사용하고 비칭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은 서거정의 동국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연상시킨다.

김종직은 계속해서 태종대부터 1488년 이전까지 조선에 파견된 한림학사 출신의 사신 명단을 나열하고 이들이 조선 곳곳에 남기고 간 시문이나 조선 문사들과 수창한 시문, 『황화집』 등을 통해 그 학식과 인품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월과 왕창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특이하다. 조선이 제후국으로서 명의 예우를 받았다는 의경전개는 전반적으로 이승소의 「황화집서」 서두와 같은데 그 표현을 조금씩 변주하였다.⁶⁹⁾

66) 김종직, 앞의 글, “欽惟皇明，混一區宇，四方萬國，無問海內外，悉爲臣妾。以朝鮮世被聲教，恪守藩宣之寄。凡有大慶大誥，必爲之特選使介，以寵綏之。其在祖宗朝，有若端木公智·祝公孟獻·倪公謙·司馬公洵·陳公鑑·陳公嘉猷·張公寧·祈公順，實膺其選，接武以來，茲數君子，學問之高，文章之富，小邦之人，耳之目之，且有親薰而灸之者矣。”

67) 변계량, 「送禮部主事陸公顛伯瞻使還詩序」, 『春亭集』 권5(『동문선』 권92에도 수록), “欽惟皇明。混一區宇。薄海內外。罔非臣妾。”

68) 변계량, 「謝恩表」, 위의 책 권9, “然權守藩宣之寄，未嘗蒙茅土之加。” 그밖에 이제현의 『익재난고』나 『고려사절요』 등에서도 용례가 다수 보인다.

③ 이제 우리 황상께서 보위를 계승하시어 온 천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이에 한림학사 동월 공과 공과급사중 왕창 공이 시종의 반열을 떠나 천자의 덕음을 반포하기 위해 만 리 먼 땅에 오시니 고상한 인품과 명망이 그분들이 지은 아름다운 시문과 함께 서로 광채를 이루었다. 학문과 문장은 단목지 이하 제공들께 뒤지지 않고, 맑은 지조는 수백 년 전 여승상과 겨룰 정도이다. 아야! 황조의 훌륭한 신 천자들께서 보위를 계승하며 인재를 양성하십시오으로써 조정의 관원들은 모두 위와 절도가 있고 정숙하여 훌륭한 현사가 아닌 분이 없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⁷⁰⁾

③단락은 어세겸이 지은 『황화집서』의 ①단락에 서술된 내용이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월과 왕창에 대한 정보가 등장했다. 어세겸의 『황화집서』와 마찬가지로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與天下更始’와 같은 표현으로 홍치제의 등극을 찬양하고, 사신의 인품과 학식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동월과 왕창에 대해서는 앞서 ②단락에서 언급한 선례들과 조응하며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세겸은 초고나 윤색고 모두에서 두 사신의 인품을 실제 행적과 달리 과도하게 칭양하거나 ‘言中度而行中禮’와 같이 사신을 칭송하는 의례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미화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김종직은 어세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학문과 문장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인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물과 뇌물을 철저히 사양했던 점에 한정하여 여단의 ‘지조(志操)’에 비견된다고 칭찬한 것으로 보인다. 천착일지 모를 이와 같은 해석이 일견 타당하다면 김종직은 사신들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 은근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직은 동월 일행이 내조했을 당시 서울에 있지 않아 이들의 고압적 태도나 관련 내막에 대해 상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수습된 『황화집』의 원고 등을 통해 정황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9) 이승소, 앞의 글, “東方自殷大師受封以來, 代事上國, (….) 明王繼作, 盡藩宣保蓋之寄, 明會同述職之禮, 事大以誠, 侯度罔愆. 故朝廷待之, 與內諸侯不異. 凡有詔命, 必遣使來, 而皆文章才行有重望於當時者, 爲之使. 若倪侍講、陳內翰及陳給事、張舍人是數先生.”

70) 김종직, 앞의 글, “今我皇上, 嗣守大寶, 與天下更始. 於是乎翰林學士章貢董公、工科給事中浙東王公, 又輟侍從之班, 來布德音於萬里, 圭璋聞望, 符綵相輝. 其學問文章, 無讓於端木以下諸公; 而其冰檠之操, 則直與呂丞相, 頡頏於數百載之上. 噫! 皇朝神聖相承, 作育人材, 朝廷庶位, 踰踰濟濟, 莫非大雅之吉士, 茲可驗也已.”

이와 같은 김종직의 사신 인물평은 뜻밖에도 1492년 6월, 성종대에 마지막으
 락으로 내조한 애박(艾璞) 일행의 『황화집』 서문을 작성한 대제학 홍귀달
 에게 계승되고 있다.⁷¹⁾ 애박 일행이 도성을 급박하게 떠나고 지어둔 시도
 적은 것에 대해 여러 문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을 가설한 뒤, 그것은
 이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골몰하였기 때문이며 사신의 도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말로 상황을 수습함으로써 애박 일행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우회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⁷²⁾ 김종직의 글쓰기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을
 지언정 후대 『황화집서』의 새로운 전거가 되었다.

④ 나는 다행히 그 시문을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인하여 책을 어루만지면서 탄
 식하였다.

“성대하도다, 빛나고 아름답도다! (중략) 두 분이 수레를 타고 처음 동방에 오
 던 때에는 그 시가 적었는데 도성으로부터 압록강으로 돌아가던 때에는 시가 많
 았으니 이것은 어찌 천자의 조서를 반포하기 전에는 막중한 사명을 생각하느라
 음영할 겨를이 없었다가 일을 마친 다음에는 지기가 느긋하게 펴져 지방의 풍토
 를 물어보고 스스로 시심이 왕성히 일어나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
 가? 그러니 두 공은 참으로 경중과 완금을 아는 군자라고 말할 만하다.

옥이 감추어져 있으면 산이 빛나고, 진주가 잠겨 있으면 물가에 고운 빛이 나
 며, 미불(米芾)의 서화로 인해 무지개가 달을 꿰뚫었다고 한다. 이 말이 과연 믿
 을 만하다면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에 들어갈 때 천기를 관측하는 이가 있어 반
 드시 말하기를 ‘석목(析木)의 분야에서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 뻗쳐 있으니, 의당
 특이한 책이 그 아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⁷³⁾

71) 홍귀달, 『황화집서』, 『虛白亭文集』 권2, “旣相與悵望而不可及則曰: ‘吾邦雖陋, 然仲尼之所欲
 居, 箕子之所受封, 亦皇朝之所眷注, 故前乎此, 皇華大夫之來遊者, 皆不鄙夷之, 賜以顏色, 請之
 而留, 勸之而飲, 登樓有賦, 棲壁有詩, 自以爲不知身之在他鄉也. 何先生之不留不處, 匪遊匪邀,
 候而來, 忽而逝, 若泥塗之將洗已也? 何前後之皆賢達, 而所履之殊也?’ 余曰: ‘不然, 君子之道,
 何必同也, 何嘗異也? 始雖不同, 而終未嘗未同.’”

72) 신태영, 앞의 책, 2005, 51~52면.

73) 김종직, 앞의 글, “某幸獲, 而窺其一斑焉, 因撫卷嘆曰: ‘盛矣哉! 炳炳乎! (….) 且其駢駢初東之
 日, 其詩少; 自國都, 還鴨綠之日, 其詩多, 豈不以恩綸未頒, 靡鹽之懷, 不暇於吟嘯; 而竣事之
 後, 志氣舒暢, 咨諏風土, 自有沛然而不可禦者乎? 二公, 可謂眞知輕重弛張之君子矣. 玉鑑山輝,
 珠潛岸暈, 米家書畫, 有虹貫月. 斯言果信, 則國使之入燕薊也, 有望氣者必曰: ‘析木之分, 有異
 氣騰空, 當有異書在其下矣.’”

김종직은 마지막 4단락에서도 「황화집서」의 전통과 다른 글쓰기를 선보였다. 「황화집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모」-「황화자화」의 작품명을 거명하는 대신, 해당 작품의 원문에 등장하는 ‘靡鹽’⁷⁴⁾-‘咨諏’⁷⁵⁾의 표현을 노출하여 독자인 사신들이 자연스럽게 전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신 임무의 어려움과 두 사신이 임무를 완수하려는 일념을 최우선시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드러내어 그 공로를 칭송하는 억양법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김종직은 「황화집서」의 전통적 마무리 방식, 이를테면 채시에의 당부나 사신의 앞날에 대한 축원 등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 구절에서도 육기(陸機)의 「문부(文賦)」에 쓰인 바 뛰어난 재주는 숨길 수 없음을 비유하는 시구를 전고로 활용하여,⁷⁶⁾ 동월과 왕창의 시문을 엮은 『황화집』이 조선[析木之分]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훗날 중국에서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두 사신의 뛰어난 재주는 물론이거니와 조선 문인들이 수창한 시문의 빼어난 수준 역시 알게 될 것이라는 은근한 자부심을 피력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요컨대 김종직의 「황화집서」는 『황화집』의 서문이라는 목적성에 긴밀하게 부합하지는 않고 그 분량도 다소 길지만, 전반적인 의경의 전개가 유기적이고 군더더기가 적은 점은 장점이다. 『시경』 등의 전고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대구를 널리 활용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어세겸과 달리 축적된 「황화집서」의 관습적 전통을 사실상 거의 활용하지 않고 과격적인 의경 전개를 보여준 점, 중국의 역대 사신들에 대한 인물평은 자칫 시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직의 「황화집서」는 조선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의 측면에서 어세겸에 비해 서거정과 보다 맥이 닿아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최종 탈락된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중국의 사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선명히 드러나는 의경 구성, 또한 「황화집서」의 창작 전통 대신 문형인 서거정이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변계량의 작품을 전고로 활

74) 『시경』 「四牡」, “豈不懷歸? 王事靡鹽, 我心傷悲.”

75) 『시경』 「皇皇者華」, “載馳載驅, 周爰咨諏.”

76) 陸機, 「文賦」, “石韞玉而山輝, 水懷珠而川媚.”, 미불의 고사는 맥락상 없어도 무방한 구절로 보이는데, 黃庭堅의 「戲贈米元章」, “澄江靜夜虹貫月, 定是米家書畫船”을 고사로 활용한 것이다.

용한 점⁷⁷⁾ 등 당시 관각문인들과 결이 다른 ‘그 무엇인가’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⁷⁸⁾

V. 15세기 관각문학 글쓰기의 집단지성적 면모

1488년 『황화집서』의 창작은 서거정의 후임 대제학을 확정 짓는 결정타였다. 동월과 왕창으로부터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성종은 허중·어세겸·김종직 등 서거정의 후배 가운데 문학적 역량이 빼어난 이들이 동원하여 사신의 접대 및 후속 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선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어세겸의 초고는 표전을 비롯해 기존 『황화집서』의 전통을 널리 활용하여 표현이나 의경전개의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지나친 검사와 두 사신에 대한 과도한 칭양은 서거정 등 선배들이 축적해 온 조선의 문화적 위상에 누가 될 수 있을 법한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문학적 능력이 출중한 중진 이상의 관료들에게 두루 창작하게 하는 방식을 거쳐 선택된 최종 작품은 별다른 윤색 없이 그대로 쓰이지만, 『황화집서』는 준 외교적 성격의 자료이니만큼 다른 관각문인들의 고심을 더하여 윤색하는 방식으로 글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황화집』에 최종 등재된 어세겸의 서문은 ‘폐방’을 비롯한 비칭과 비하의 표현을 전면 삭제하는 한편, 권람-이승소-서거정 등이 수립해 둔 『황화집서』의 내용 전개 및 핵심적 틀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용함으로써, 서거정대 관각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 의식 등을 이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재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 어세겸은 일찍이 외교현장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으며 현실 감각을 기를 수 있었는데, 그의 초고는 바로 그러한 현실 감각이 지나치게 기민하게 발현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반면, 김종직의 작품은 동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77) 정출현, 앞의 논문, 2021, 139~145면.

78) 한편, 이 『황화집서』의 탈락 과정은 1488년 당시 김종직이 서거정 등과 정치적으로 노선의 분기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듯도 하다.

는 점에서 서거정의 문명의식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화이질서와 관련된 적절한 수위를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표현이 보인다. 그는 「황화집서」의 전통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의경 전개를 보였으며, 특히 1단락에 중국에서 파견한 역대 사신의 인품을 거론하며 그 잘잘못을 적시한 부분은 논란과 외교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서거정의 「황화집서」에 대한 창작의식을 고려할 때, 그 역시 외교와 관련된 관각문학 글쓰기에서 유교 문명에 의해 질서화된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대해 구가(謳歌)하고, 그 한 축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조선의 문화적 융성함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언급한 정출현(2021)에서도 분석되었듯, 화이질서를 내재화한 가운데 수립된 문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치세 안정기에 접어든 조선과 조선의 수많은 인재들로부터 시작된 문화적 자부심은 서거정과 김종직, 홍귀달 등의 관각문인들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종직은 「황화집서」를 찬술하기에 앞서 중국으로 사신 가는 동료들 전송하며 지어준 송서에서 뛰어난 인재가 명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조선 인재의 수준이 최고에 도달했다는 자주적 문명의식을 보여준 바 있다.⁷⁹⁾ 이것이 동료들 독려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무방하나, 「황화집서」와 같은 준 외교적 성격의 글쓰기에서도 발현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외교와 관련된 관각문학 글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효용성과 목적성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국가의 위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긴장감이 중첩된 영역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김종직은 1470년대부터 일본 사신의 송별연 등 준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이때 자신이 창작한 초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외교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서거정에게 배운 바 있다. 40대의 김종직의 시야에는 성종이 인화(仁化)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 문물의 융성함보다 더 기쁘게 포착되었다. 60세를 코앞에 둔 1488년의 김종직에게 그 인화의 결과에 따른 자부심은 한층 강화되었다.

1492년에 상중이던 어세검을 대신하여 임시 대체학으로서 「황화집서」를

79) 1486년에 지은 「送李國耳赴京師序」 등이 그 사례이다. 구슬아, 앞의 논문, 2017, 359~362면.

찬술한 홍귀달은 김종직의 글쓰기 방식을 상당 부분 계승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수창하며 융성한 시도(詩道)를 자랑 하던 주나라를 예로 들어, 이러한 시기에는 ‘천자의 나라만이 아니라 제후 국에서도 모두 풍요를 지었다[非特天子之國, 至於列國, 皆有風謠.]’고 말하였다. 이러한 태평성대에 천자의 사신이 제후국의 대부들과 시를 지어 상호 소통함으로써 천자의 조화에 부응하고 같은 유교의 문명권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當時王人之使於四方者, 與列國大夫, 相與賦詩, 以通其志, 于以應天地之和, 而驗文軌之同.”]도 보았다.

1488년본 「황화집서」의 창작을 둘러싼 위와 같은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그 서문에는 조선 최고 관각문인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던 조선의 인문에 대한 자부심과 문명국으로서의 정치적 비전이 매우 세심하게 정제된 형태로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이와 같은 관각문학 글쓰기 방법에 대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가까운 면모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관각문인들이 조선의 문화적·학문적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견지한 채 공동의 문명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동원하고, 그 가운데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나 표현 등을 취사·간택하며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초고의 작성자 혹은 창작에 두루 참여한 여러 문인들 대신, 윤색고의 작성자 혹은 최종 간택된 작성자의 이름만이 등재되지만, 그것을 오롯이 이름이 등재된 개인의 작품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⁸⁰⁾ 바로 같은 시기 관각문인들 공통의 고민과 협업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 창작과정 중에 서로 의식을 달리하는 부분 역시 더욱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1488년의 「황화집서」 창작과정에는 바로 이처럼 서거정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성종치세 후반기 문명의식 및 외교 현장에 쓰이는 관각 글쓰기의

80) ‘집단’이란 공동의 관심사나 목적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 가는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응집, 역동적 상호작용,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체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자발성’ 부분은 15세기 관각문학 글쓰기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Pierre Levy, 권수경 옮김,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4; 이유나·이상수, 「집단지성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개념모형과 설계 원리」, 『교육공학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교육공학회, 2009, 216~217면.

변화와 균열의 양상이 담겨있다. 이 연구를 통해 15~16세기 문명의식의 향방을 둘러싸고 관각문인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었음도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皇華集』(장서각 소장 1476년본, 청구기호: K4-368)
『皇華集』(장서각 소장 1488년본, 청구기호: K4-372)
김종직, 『估畢齋集』(한국고전번역원 DB)
변계량, 『春亭集』(한국고전번역원 DB)
서거정, 『四佳文集』(한국고전번역원 DB)
어세겸, 『咸從世稿』(규장각 소장 필사본, 청구기호:奎4190-v.1-4 ; 驪江出版社, 1987)
이승소, 『三灘集』(한국고전번역원 DB)
홍귀달, 『虛白亭文集』(한국고전번역원 DB)
『동문선』(한국고전번역원 DB)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DB)

2. 단행본

- 신태영,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Pierre Levy, 권수경 옮김, 『집단 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4.

3. 논문

- 구도영, 「조선 전기 조명(朝明)외교관계의 함수, 예의지국(禮義之國)」, 『대동문화연구』 제8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159~203면.
구슬아, 「김종직 산문 연구-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 「草創과 潤色,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글쓰기 방식 연구」, 『규장각』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33면.
_____, 「가리어진 문형(文衡)-어세겸(魚世謙)의 삶과 관각산문 연구」, 『동서인문학』 제60권,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7~48면.
김기화, 「『皇華集』의 編纂과 板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은정,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한국한시연구』 제7호, 한국한시학회, 1999, 307~336면.
김풍기, 「권위를 생성하는 글쓰기와 변계량의 문장의 문학사적 의의」,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3집,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21, 269~300면.

- 신태영, 「『황화집』의 편찬의식 연구-서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5집, 우리한문학회, 2001, 115~144면.
- 안장리, 「朝鮮 前期 『皇華集』 및 明使臣의 朝鮮關聯書籍 出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어교육학회, 2002, 347~371면.
- 윤재환, 「『皇華集』의 編纂 意圖와 文學的 價値 再考-『皇華集』 逸序文과 『皇華集』 關聯 資料를 中心으로-, 『고전과 해석』 제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6, 165~203면.
- 이규철, 「조선 성종대 외교의례 변경에 대한 논의와 대명의식, 『역사와 현실』 제9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169~197면.
- 이유나 · 이상수, 「집단지성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개념모형과 설계 원리, 『교육공학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교육공학회, 2009, 215~241면.
- 이은영, 「조선시대 表箋연구(1)」, 『한국한문학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81~113면.
- _____, 「조선시대 표전(表箋) 연구(2)」,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469~500면.
- 정출현, 「四佳 徐居正의 東國文明 비전과 文章華國의 실천, 『고전문학연구』 제59집, 한국고전문학회, 2021, 125~163면.

Aspec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in 15th Century Gwan-gak Literature

-Focusing on "The Preface to *Hwanghwajip*" in 1488-

Koo, Seul-Ah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d the Preface to *Hwangjip*(皇華集序), which was created in 1488 by Eo Se-gyeom(魚世謙) and Kim Jong-jik(金宗直), in order to confirm the aspec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in 15th Century Gwan-gak Literature. In this process, it was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at Eo Se-gyeom's prefa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ent and expression from the works contained in his collection of works. Also, through the difference in the writing method between the first draft and the revised manuscript, it was estimated who the subject of embellishment was.

This preface was written to Dong Wol(董越) and Wang Chang(王敞) when they came to Joseon as envoys. At that time, the two envoys were evaluated as having both profound knowledge and etiquette, but their words and actions that harmed the cultural pride of Joseon around the ordinances(詔勅所禮) made the minds of King Seongjong and his ministers uncomfortable. Therefore, it was necessary for Joseon to properly express the sense of civilization of Joseon through this preface.

This preface was written in such a way that the most outstanding works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outstanding writers. The final preface was written by Eo Se-gyeom. In this paper, Seo Geo-jeong's consciousness of civilization was used as a reference for comparison, and the revised final manuscript was compared with Eo Se-gyeom's draft.

As a result, Eo Se-gyeom showed an aspect of excessively demeaning the cultural capabilities of Joseon while using many toadyish expressions that conform to the Hwa-i(華夷) order in the first draft. In the revised manuscript,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censored by Seo Geo-jeong, such expressions are completely deleted, while the creative tradition of the Preface to *Hwanghwajip* is more actively utilized. On the other hand, Kim Jong-jik emphasized the cultural pride of Joseon to the

utmost, but it was not finally adopted.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were fierce discussions and concerns within the Gwan-gak literature over the direction of diplomacy and civilization consciousness in 15th century.

keywords: Seo Geo-jeong(徐居正), Eo Se-gyeom(魚世謙), Kim Jong-jik(金宗直),
the Preface to *Hwanghwajip*(皇華集序), Gwan-gak literature,
Collective Intelligence, consciousness of civilization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
